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5 No. 1, 37-47, March 2016
ISSN (Print) 1225-8482|ISSN (Online) 2288-4653
http://dx.doi.org/10.12934/jkpmhn.2016.25.1.37

정신간호학실습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경험과정

송은아[1] · 안효자[2]

국립나주병원[1], 동신대학교 간호학과[2]

Experience Process of Reducing Prejudices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in Psychiatric Wards

Song, Eun A[1] · An, Hyo Ja[2]

[1]Naju National Hospital, Naju
[2]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nursing students' experience process of reducing prejudices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Methods:** Participants were 9 nursing students who showed positive changes in prejudices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014 to February 2015 through in-depth interviews. Data were analyzed following Colazzi (1978) phenomenological method. **Results:** Analysis showed that for the students' lived experiences of reducing prejudice, there were 47 constructed meanings as 17 subjects in 6 groups: fear, terrifying, relaxation, pitifulness, realization, and sense of kinship. Fear included harm, unpredictability, and wackiness, while terrifying included handshakes without facial expression and unfocused eyes. For relaxation, the content included doing things together, receiving consideration, and being helpful, while for pitifulness it was feeling pathetic, sorry, and anger instead concern for patient. The content for surprise included tenderness, awareness of reality, self-assertiveness, and excellent ability, and for sense of kinship, the same as me and doing with me. **Conclusion:**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or field leaders should provide enough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understand and express their feelings about mental illness. Providing proactive education and programs to reduce prejudices about mental illness before the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are also suggested.

Key Words: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Mentally ill person, Prejudice, Nursing students, Phenomenological stud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화·기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각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1]. 반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2]. 1995년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여, 정신장애인을 병원이나 수용소와 같은 시설이 아닌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다

주요어: 정신간호학 실습, 정신장애인, 편견, 간호대학생, 현상학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An, Hyo Ja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185 GeonJae-ro, Naju 520-714, Korea.
Tel: +82-61-330-3586, Fax: +82-61-330-3580, E-mail: callm68@hanmail.net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Dongshin University.

Received: Jan 25, 2016 | Revised: Mar 11, 2016 | Accepted: Mar 15,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양하고 포괄적인 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편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3,4].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정신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가족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5-7].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증상으로부터 겪는 고통 외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 학력 및 지적 수준과도 무관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8]. 이러한 문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8,9], 최근 들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권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모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간호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교과과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평가 그리고 주기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10-12]. 또한 보다 집중적인 편견해소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13].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14], 동영상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13,15-17], 인권감수성훈련[12] 등과 같이 적극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정신병동 실습 전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 및 공포 등으로 정신병동실습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실제 정신간호학 교과과정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정신병동 실습경험을 통해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만으로는 태도와 행동 변화에 효과가 없고[18],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과 정신병동 실습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반대로 정신병동 실습과 이론교육을 마친 후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1].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신 병동실습 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신간호학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어떤 경험이 편견해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정신병동 실습경험이 편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신병동 실습을 통해서 편견해소(prejudice reduction)가 됐다고 판단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정신간호학실습동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험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편견해소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경험과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구조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방법[20]으로서 간호대학생의 편견해소 경험과정을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학실습을 한 간호대학생들 중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가 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신간호학실습이 간호학생의 편견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여, 정신간호학실습 지도에 참조하고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안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학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경험과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실습 전·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정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편견정도의 차이가 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견해소 경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신간호학실습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경험과정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Figure 1).

2. 연구대상

J도에 소재한 국립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정신간호학실습을 한 3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최종 96명의 정신간호학실습 전·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그 중 실습 전·후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상위 30%의 간호대학생 중에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로 하였다.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나오지 않아 이론적 포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면담을 중지하였고 최종 9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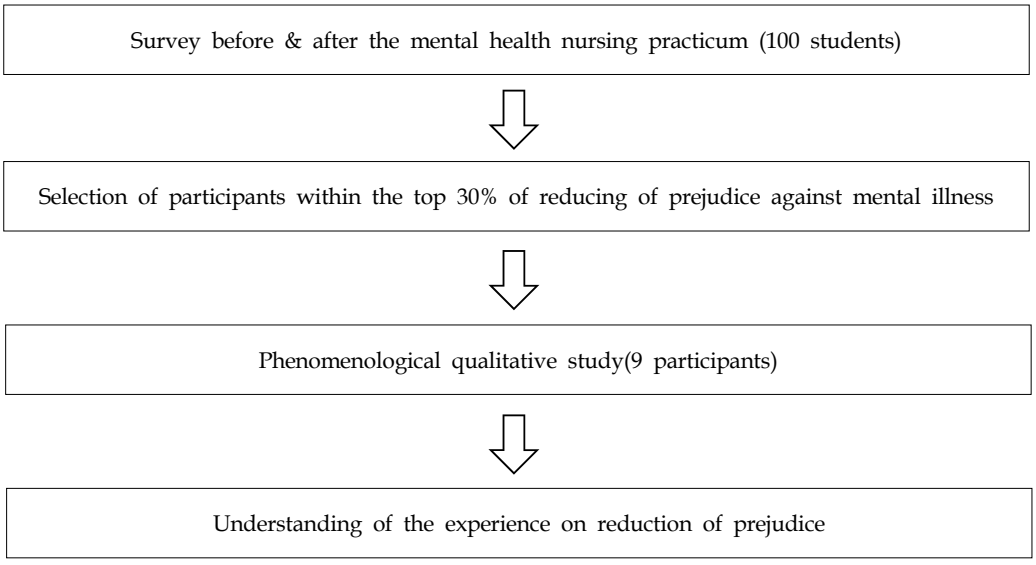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process.

3. 연구도구

정신간호학실습 전·후의 편견정도는 Kim[21]이 개발한 정신장애인 편견척도를 사용하였고 4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0,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양적분석결과는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심층 면담 질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관련 문헌을 참고하고 정신병원 경력 20년 이상인 정신보건간호사에게 검토 받고 최종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크게 3개 영역으로, 정신간호학실습 전, 정신간호학실습 동안, 정신간호학실습 후로 구성되었다. 개방적인 질문은 "당신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경험은 무엇입니까?"로 하였고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질문은 정신간호학실습 전에는 "실습 전 정신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로 하였다. 다음으로 정신간호학실습 동안과 관련된 질문은 "정신장애인의 첫 느낌은 무엇입니까?", "가장 인상적인 혹은 기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신과 환자의 입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장면을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로 하였다. 실습 후 관련 질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실습 후 정신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로 구성되었다.

4. 자료수집

편견정도에 대한 양적 연구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실습생 중 3학년이면서 2주 실습을 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100명에게 실습 전·후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분석에는 불성실한 응답 6부를 제외한 최종 94부를 자료분석을 하였다. 실습전-실습후의 차이값의 범위는 -.96~.87점까지이며 편견점수가 줄어든 상위 30%이내 대상자를 질적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실시되었다. 첫 만남에서는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연구의 결과로 제시될 때에는 면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으로 제시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면담을 하기 전에 면담 내용의 필사를 위해서 녹음이 필요함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하였다. 보통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였고 평균 면담횟수는 1~2회이었다. 면담 직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사하였고 참여자별로 파일명을 부여하여 저장하였다. 필사된 내용을 보면서 의미 있는 문장은 참여자별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5. 자료분석

양적 자료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정신간호학실습 전·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변화를 확인하였다. 백분위수를 이용하여 30%이내를 선정하였다.

질적 자료분석은 편견해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9명을 대상으로 Colaizzi [20]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22]. 1단계에서는 전사된 자료 전체를 검토했다. 면담 뒤에 바로 필사를 하였으며 전반적인 느낌을 얻을 때까지 모든 필사본을 여러 차례 읽고, 개별 필사본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의 편견해소 경험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의미한 어구나 문장을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했다. 개별적인 자료를 하나씩 다시 검토하면서 정신장애인의 편견해소 경험과정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진술들을 추출해냈다. 3단계에서는 의미를 형성했다. 각각의 유의미한 진술들을 토대로 그 의미를 발견해냈던 단계로, 정신장애인의 편견해소 경험과정에 대해 명백하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그들이 암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의 작업을 한 차례 더 반복하면서 그것을 통해 드러난 의미들을 주제모음으로 정리했다. 의미들을 통해 주어진 것을 토대로 그들과 더불어 주어지는 주제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일단 주제들이 확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자료를 보면서 그 내용을 수정 · 보완해나갔다. 5단계에서는 주제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했다. 6단계에서는 포괄적인 기술을 정신장애인의 편견해소 경험과정의 근본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료한 진술로 바꿔주었다. 7단계에서는 연구자는 결과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다시 접촉했다. 연구자의 분석이 연구참여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와 일치했는지를 확인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6. 연구의 엄밀성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신뢰도, 객관성에 대안적인 개념으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그리고 중립성(neutrality)의 기준을 따랐다[23,24].

사실적 가치란 신빙성(credibility)이라고도 불리며, 원 자료를 통해 수집된 현상이 연구결과를 통해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연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면담장소는 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간도 배려하였다. 또한 필사된 자료된 기록을 보여주어 면담의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간호학과 교수 4인에게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분석과정과 결과 도출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적용성이란 적합성(fitness)이라고도 불리며,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 지와 관련된다. 연구의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통해 편견해소에 긍정적인 차이를 보인 30%에는 포함되었지만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간호대학생 2명에게 분석된 결과와 해석된 자료를 제시하여 충분한 공감여부로 확인하였다. 일관성은 감사성(auditability)이라고도 불리며, 자료의 관찰과 분석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다. 중립성은 확증성(conformability)이라고도 불리며,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나 가정이 배제되어야 함을 말하고, 사실적 가치와 적용성, 일관성이 확립될 때 획득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생각, 학생들이 실습경험을 통해 가질 수 있는 편견 관련 경험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괄호치기를 하였다. 또한 자료분석이나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국립정신병원 기관 임상연구관리위원회(IRB 2014-8)로부터 연구목적, 연구방법, 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 질문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 내용,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음성녹음을 동시 진행하며, 필요 시 노트필기가 이루어짐을 안내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8.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팀원은 학위과정 중에 질적 연구방법과 간호철학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학회에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현상학과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한 경험이 있다. 또한 정신과 병동에서 다년간의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보건간호사 1급과 정신전문간호사 및 정신보건시설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경험과정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진술은 253개, 의미 있는 진술들을 통해 얻어진 구성된 의미는 47개였다. 구성된 의미들에서 주제 17개, 주제모음 6개가 도출되었으며, 주제모음으로는 '무서움', '섬뜩함', '이완감', '측은함', '깨달음', '동질감'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과정으로 도식화하였다(Figure 2).

1. 무서움

연구참여자들은 정신간호학실습하기 전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각으로는 드라마와 영화 등 언론매체 또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범죄, 성폭행으로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선입견과, 정신장애인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 그리고 우리와 다른 종(種) 일 것이라는 무서움을 가졌다.

1) 해코지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인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아주 위험하고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실습을 하는 동안 자신 역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정신장애인들은 무섭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 변태처럼 할 것 같고, 심하게 말하면 성폭행을 할 것 같은…… 해코지 할 수도 있고.(참여자 1,2)
>
> 모두 싸이코패스, 정신분열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을 거 같아요.(참여자 3)

2) 예측불허

정신장애인은 생활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광기어른 행동을 순식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하였다.

>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려운 존재라고 막연하게 생각이 들며 선뜻 다가가기 힘들었고.(참여자 4)
>
> 처음 보는 나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거나 갑자기 화를 내면 어떡하나.(참여자 6)

3) 별종(別種)

정신장애인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이 다르거나 특별하고 항상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왠지 정신 장애인들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느끼는 감정들이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았어요. 인정이 없다든지 나에게 하는 말이 다 거짓일 것 같고 우리가 느끼는 것 보다 슬픔 기쁨 등의 느낌이 덜 하다든지…… 항상 제정신이 아닐 것 같고 비속어도 많이 쓰고 그냥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 일 거라고 생각했어요.(참여자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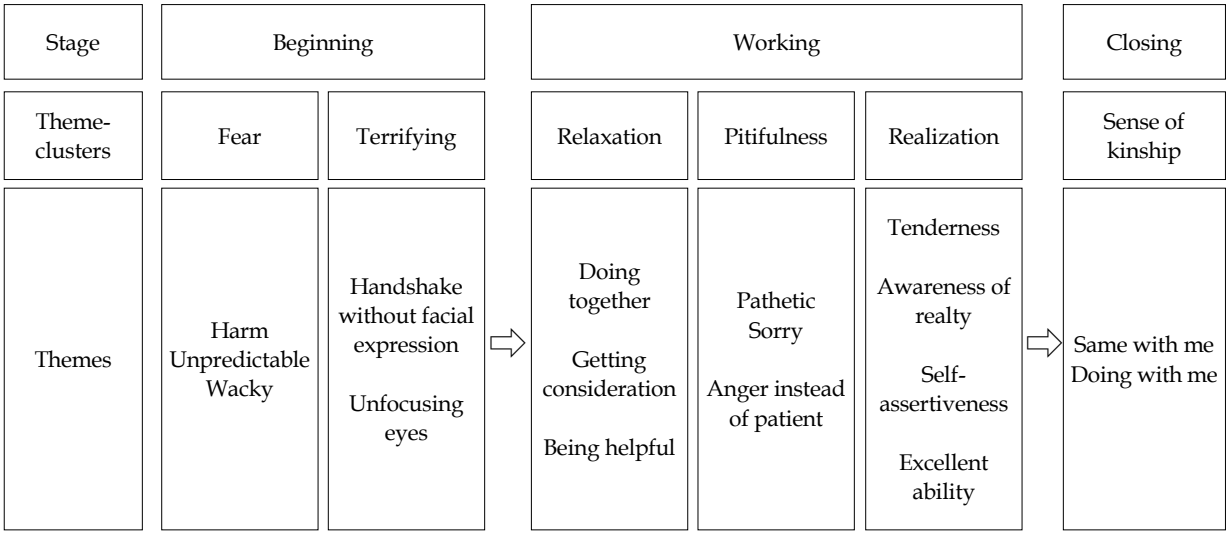

Figure 2. Experience of overcoming prejudices towards mentally ill persons.

2. 섬뜩함

연구참여자들은 실습 전부터 정신장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해소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정신과 병동 실습에 임해야 했다. 폐쇄병동의 철문을 경험하는 순간 그리고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을 가진 환자들과의 첫 대면은 실습 전의 선입견과 편견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실습 첫 2~3일 정도는 지속되었다.

1) 표정 없는 악수

연구참여자들은 실습병동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었다.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철로 된 출입문에, 문을 여는 열쇠소리 등이 더욱 낯선 환경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병동에 들어서자마자 환자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더욱 두려웠다.

> 표정이 없는 모습으로 수십 명의 환자 분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저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어요. 먼저 다가오는데 무서워서 먼저 실습 나온 학생들한테 제발 나 좀 혼자 두지 말라고 붙어있었어요. 환자분들의 그런 관심이 반갑지는 않았어요.(참여자 2)
>
> 반갑다고 다가와서 악수하자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요.(참여자 7)

2) 초점 없는 눈빛

음성증상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무표정하거나 눈의 초점이 없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약물의 부작용이나 하나의 증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자신의 선입견을 재확인함으로써 두려움이 강화되었다.

> 병동에 들어서자마자 환자분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무섭게만 느껴지고……(참여자 5)
>
> 눈은 마치 동공이 풀린 사람처럼 멍~하게 침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니 '아 진짜 정신병원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8)

3. 이완감

연구참여자들은 실습동안 환자들이 주는 진심어린 배려와 관심이 느껴지면서 차츰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반대로 연구참여자들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환자들에게 기쁨과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좀 더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구참여자와 환자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고 심리적으로 이완되게 하였다.

1) 함께 함

연구참여자들은 실습동안 환자들과 병동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말도 걸어보고 운동도 함께 하면서 차츰 무서움이 가시기 시작하였다.

> 남자 병동에서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말도 잘 걸어주셔서 친해지기 쉬웠어요.(참여자 3)
>
> 같이 노래방도 가서 어울려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생각이 마냥 무서운 것은 아니었어요.(참여자 5)

2) 배려 받음

연구참여자들은 정신간호학실습 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도와주려는 환자들의 진심이 느껴지면서 두려웠던 마음은 점점 옅어졌다. 실습 전에는 정신장애인에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보여주는 배려는 더 크게 느껴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 항상 웃는 얼굴로 옆으로 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항상 밥은 먹고 일하냐며 친절하게 물어 봐주시고 책을 읽으시다가 좋은 문구가 있으면 기록해두었다가 쪽지로 전달해주시는 등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더 마음이 쉽게 열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참여자 6)
>
> 어떤 환자분은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참여 못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때 그 환자 분이 너무 감사했어요.(참여자 7)

3) 도움을 줌

연구참여자들의 관심과 말 한마디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에 자신감을 경험하고 뿌듯해했다.

서예를 잠시 배웠었다고 하셔서 저는 00님이 서예를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엄마에게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와서 엄마가 허락했다고 선생님 덕분이라면서 드디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1)

4. 측은함

정신장애인과 좀 더 친해지면서 정신장애인의 삶을 보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환자들이 폐쇄병동 생활로 인한 답답함과 병의 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공감하였다. 그리고 의료진과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민과 분노를 느꼈다.

1) 불쌍함

연구참여자들은 환자들이 폐쇄병동에서 하루 종일 갇혀서 생활하고 퇴원도 언제할지 모르는 상태로 얼마나 답답할지를 공감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들이 환자를 무시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에 분노하고 환자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다.

폐쇄병동에만 있어 너무 답답해하던 환자들이 떠올라요. 그나마 하루에 한 번 있던 동반산책이나 자유산책 또한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 못한 환자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참여자 4)

환자 보호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창문도 철장으로 다 막아져 있고…… 휴대폰도 못 쓰고…… 날씨 좋은 날 축구도 하고 싶고 달리기도 하고 싶고 꽃도 보고 싶다는 환자분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어요.(참여자 8)

그리고 퇴원을 해도 집이 없거나, 같이 생활 할 가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입원을 해서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분들이 많았어요.(참여자 5, 6)

가족이 있어도 가족들보고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분도 계시고 다른 날도 아닌 명절인데 이런 날까지 가족들이랑 못 보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참여자 9)

2) 안타까움

연구참여자들은 차츰 환자들이 나타내는 난폭한 증상들조차 무섭고 도망가기 보다는 증상들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이 안쓰럽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음에 안타까워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화를 주체를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환자를 잡고 욕하고 소리 지르니까 주사님들이랑 오셔서 제지를 하셨는데 결국 그날만 4번 갇히셨어요. 거기 갇혀서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 지르는 소리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도 들리는 것 같고.(참여자 2)

또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환자들에게 맞아도 의사소통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아파만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어요.(참여자 3)

3) 대행분노

연구참여자들은 정신과의 간호보조원들이 정신장애인에게 이름대신 번호로 부르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보고 정신장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환자들을 대신하여 분노 하였다.

동반산책 나갈 때는 교도소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름을 부를 때도 죄수번호만 안 붙었다 뿐이지 '누구 어디 있어? 앞에 보고 서. 빨리 빨리 좀 서. 다음부터 자유산책 나가고 싶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그 정도까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2)

갑자기 악을 지르는 환자들이 많은데 간호사님께서 억제대를 바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꼭 억제대를 사용하는 게 해결책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참여자 9)

환자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을 묶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인권이라 할 수 있나……(참여자 8)

5. 깨달음

연구참여자들은 우리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신장애인에게서 다정다감한 인간적인 면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가진 편견의 실체를 알아차렸다. 또한 자신의 병이 타인이나 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행동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뛰어난 예술적 감각 등을 목격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1) 다정다감

연구참여자들은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서로 도와가며 지내고, 실습을 마치면 떠나게 될 연구참여자에게도 이별의 아쉬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인간의 따뜻함과

친밀감을 느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이 많은 것 같아요.(참여자 7)

어떤 환자분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혼자는 못 갈아서 기저귀를 끌고 다니시는데 다른 환자분이 내가 해줄게 하고 화장실 데려가는 모습을 봤어요.(참여자 2)

그리고 어떤 환자분이 예전에 실습생들에게 받았던 편지를 하나하나 다 보관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참여자 3)

식탐이 엄청 많고 절대 우리에게 양보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환자분들이 본인 쓸 것도 모자를 텐데 실습생 3명에게 맛있는 것 사주신다고 하시는 모습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80%는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1)

2) 현실자각

정신장애인들은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입장인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역시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실을 깨닫고 있음을 알았다.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곧 퇴원인데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크대요.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가고 싶지 않냐고 물으니까 나는 이미 정신병자라는 딱지가 붙어있고, 밖에 나가봤자 친구들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부인도 나를 버리고, 가족들도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놔두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참여자 2)

3) 자기 주장

일반인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끌어나가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장애인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정신질환자들은 그런 모임을 못 할 줄 알았어요. 새로운 회장을 추천하고, 투표하고, 자신의 주장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잘 참여하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잘 지키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잘 집중하셨어요.(참여자 8)

또 건의 사항 같은 코너에서 컴플레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환자들과 친하게 지냅시다. 간식비를 줄입시다. 청소를 깨끗이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참여자 2)

그리고 예민한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힘들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상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참여자 7)

4) 뛰어난 솜씨

정신장애인들은 무능력하고 아무런 욕구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들이 보여주는 예술적인 감각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았다.

한 환자분께서 제 명찰을 보더니 초상화를 그려주시겠다고 하셔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명찰을 드렸는데 뛰어난 그림실력으로 그려주시는걸 보고 너무 놀랐고 그 뒤로 더 그려달라고 이야기 나누던 게 생각나요.(참여자 9)

6. 동질감

정신간호학실습이 거의 마칠 무렵에는 정신장애인 역시 아픈 사람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1) 나와 같은 사람

밖으로 보이는 정신장애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증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나와 다를 게 없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랑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인데 감기 같은 신체의 병이 정신과 마음에 온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참여자 4)

우리와 같은 감정들을 느끼고 막연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사람이고.(참여자 7)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1).

몸이 아프고, 장애를 입는 것처럼 정신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참여자 8)

지금은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참여자 1)

2)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정신장애인들도 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며 그들에게도 삶에 대한 계획이 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 우리랑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자신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참여자 3)
>
> 이 환자분들도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고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9)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정신간호학실습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경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정신간호학실습 전부터 언론매체와 주변사람들로부터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듣게 되어 정신장애인은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와 다른 별종이라는 선입견으로 두렵다는 편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채 정신간호학실습에 임해야했다. 실습 첫날 예사롭지 않는 출입문과 열쇠소리, 무표정하고 초점 없는 환자들이 손을 내밀면서 다가오자 거부감과 두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실습 동안 병동 재활 프로그램을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대화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은 차츰 옅어졌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진심으로 느껴지면서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또한 연구참여자들 역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급격하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 심리적으로 이완되면서 정신장애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폐쇄병동생활의 답답함, 병의 증상과 그 증상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공감, 환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 등으로 측은함을 느끼면서 한층 더 환자들에게 다가갔다. 한편 환자들 간에 서로 아끼고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다정다감함,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 냉혹한 현실에 대한 자각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환자들의 예술적 감각 등을 목격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장애인 역시 나와 같은 사람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수용적인 태도가 되었다.

논 의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중요한 요소로서, 편견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학실습 시 간호대학생은 정신장애인 편견에 대한 경험으로 6개의 주제모음인 '무서움', '섬뜩함', '이완됨', '측은함', '깨달음', '동질감'으로 확인되었다. 정신과 환자를 만나기 전에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가졌지만 환자들과 대화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누그러졌다. 연구참여자들은 환자들의 일련의 삶을 보게 되면서 측은함이 생기고 일반인보다 더 성숙한 태도와 솜씨에 놀랐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들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 받아야 되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정신간호학실습 일지를 분석한[25] 내용 분석에서는 6개의 주요 주제로 연구에서는 '의미있는 학습', '의사소통의 어려움', '치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힘의 불균형', '자기성찰', '동일시'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치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은 본 연구의 두려움과 섬뜩함과 유사한 주제이고 자기성찰은 깨달음과 그리고 동일시는 동질감과 유사한 주제로 볼 수 있다.

정신간호학실습 전에 무서움은 간호대학생들이 정신간호학실습 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해코지할 것 같고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생각이며, 간호대학생들은 정신간호학실습의 특수성으로 인한 걱정과 살인이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신문이나 영화를 쉽게 접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했다. 이러한 무섭다는 편견은 안을 볼 수 없는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있는 정신간호학실습 출입문에서부터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정신장애인의 무표정한 모습과 무서운 눈빛으로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고 다가오는 정신장애인들과의 첫 대면은 두려움을 더 가중시켜 섬뜩함을 경험하게 했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곧바로 정신간호학실습에 임해야 하고 정신간호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26]에서도 정신간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결과[27] 대학생들은 그들이 접촉했던 정신장애인과의 만남에서 받은 인상이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조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의 횟수만을 증가시키는 것은 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해 위험성을 내포한 기사가 53.7%[28]로 높게 차지하고, 편협한 보도는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29]. 연구참여자들 역시 대중매체로 인해 편견이 강화된 상태에서, 두려움과 섬뜩함은 예견될 수 있다.

간호학생의 정신간호학실습 경험에 대한 내용분석[30]에서는 실습 전에는 정신간호학실습에 대한 기대감, 정신과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정신과 환자에 대한 호기심이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대감, 호기심은 없었고 두려움만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 전에 편견이 강할수록 실습 후에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습 전에 편견이 심한 간호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신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와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에만 치중해 있었다. 따라서 실습 교육 담당자는 간호대학생이 갖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살펴서 실습 전에 의견을 나누고 표현하도록 돕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Hyun과 Seo[30]의 실습과정 중에 환자를 중심으로 한 경험에서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의 괴리감, 환자에 대한 동정 등 2개의 개념이 나왔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측은함과 깨달음의 주제모음과 일맥상통한다. 선행연구에서[30] 간호대학생들이 정신간호학실습 전에는 모든 환자들이 보호 억제대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말도 잘하고 정상인처럼 보여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정다감하고 자기주장을 하는 모습, 초상화를 그려주는 모습 등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경험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Landeen 등[25]과 Hyun 등[30]의 연구에서 정신과 실습을 마치는 시기에 대한 경험에서는 한 개인으로 정신과 환자를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고, 이는 본 연구의 '나와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참여자들이 정신간호학실습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일련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실습초기에는 무서움과 섬뜩함으로 거부감이 강했지만 환자들과의 상호협조를 하면서 급격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 선입견이 아닌 환자 자체를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환자에 대한 측은함과 환자들의 인간적인 면과 능력들을 알게 되면서 호감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정신장애인 역시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정신간호학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과 편견해소에 대한 일련의 변화과정 그리고 태도의 전환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경험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정신간호학 교수와 현장지도자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신간호학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불안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모색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간호학실습을 담당하는 교수, 현장지도자, 프리셉터 등은 정신간호학실습 전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실습 전에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정신간호학실습 전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과 편견해소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실습 전·후 편견해소가 긍정적으로 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습 전·후 편견이 강화된 경우 또는 편견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실습 전·후로 편견해소의 차이가 큰 실습생을 대상으로 편견해소 경험과정을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6개의 주제모음인 '무서움', '섬뜩함', '이완됨', '측은함', '깨달음', '동질감'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습초반에는 무서움과 섬뜩함이 강했지만 정신장애인과 관계를 하면서 이완되고 점차적으로 측은함과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뛰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깨닫게 되면서 편견이 줄어들었다. 결국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수용하였다. 따라서 실습지도교수와 현장지도자들은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과 정신간호학실습 전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011. 439 p.
2. Lee CG, Kim JG, Kim EY.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act applicat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2;41(4):693-705.

3. Kang HW.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Ment Health Soc Work. 2010;35:5-50.
4. Kim GH, Kim KH. The teachers` attitudes, discrimination and causes of prejudice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3;22(2):97-106. http://dx.doi.org/10.12934/jkpmhn.2013.22.2.97
5. Hinshaw SP, Stier A. Stigma as related to mental disorders. Annu Rev Clin Psychol. 2008;4:367-93. http://dx.doi.org/10.1146/annurev.clinpsy.4.022007
6. Mann CE, Himelein MJ. Factors associated with stigmatiza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 Serv. 2004;55(2):185-7. http://dx.doi.org/10.1176/appi.ps.55.2.185
7. Corrigan PW, Markowitz FE, Watson AC. Structural levels of mental illness stigma and discrimination. Schizophr Bull. 2004; 30(3):481-91. http://dx.doi.org/10.1093/oxfordjournals.schbul.a007096
8. Thornicroft G, Rose D, Kassam A. Discrimination in health care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t Rev Psychiatry. 2007;19 (2):113-22. http://dx.doi.org/10.1080/09540260701278937
9. Arvaniti A, Samakouri M, Kalamara E, Bochtsou V, Bikos C, Livaditis M. Health service staff's attitudes towards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2008; 44(8):658-65. http://dx.doi.org/10.1007/s00127-008-0481-3
10. Noh CH.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0;9(2):145-55.
11. Yang S, Yu SJ. The Stigma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mentally ill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between before and after learning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1;10(3):421-35.
12. Ju HG, Lee KJ, Kim HS.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program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b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3;22(3):169-79. http://dx.doi.org/10.12934/jkpmhn.2013.22.3.169
13. Thompson TC, Emrich K, Moore G. The effect of curriculum on th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disability. Rehabil Nurs. 2003;28(1):27-35. http://dx.doi.org/10.1002/j.2048-7940.2003.tb01718.x
14. Van der Kluit MJ, Goossens PJ.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of nurses in general health care toward patients with comorbid mental illnes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Issues Ment Health Nurs. 2011;32(8):519-27. http://dx.doi.org/10.3109/01612840.2011.571360
15. Kim MH.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person among EMT college student before and after psychiatric nursing course work. J Korean Soc Emerg Med Technol. 2002;6(6):5-14.
16. Corrigan PW. Research and the elimination of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Br J Psychiatry. 2012;201(1):7-8. http://dx.doi.org/10.1192/bjp.bp.111.103382
17. Sideras S, McKenzie G, Noone J, Dieckmann N. Impact of a simulation on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schizophrenia. Clin Simul Nurs. 2015;11(2):134-41. http://dx.doi.org/10.1016/j.ecns.2014.11.005
18. Angermeyer MC, Holzinger A, Carta MG, & Schomerus G. Biogenetic explanations and public acceptance of mental illness: systematic review of population studies. Br J Psychiatry. 2011;199(5):367-72. http://dx.doi.org/10.1192/bjp.bp.110.085563
19. Kim HS, Eom MR.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ego state according to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5;14(3): 276-84.
20.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48-71. (Valle R, King M, 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21. Kim CN. Development of the social stigma scale of mental illness patients. Kor J Psychol: Gen. 2003;8(3):595-607.
22. Kim BH, Tak YR, Chon MY. A study of the experience of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who are in an independent hospice center. J Korean Acad Nurs. 1996;26(3):668-77.
23. Shin KL. Criteria for critique of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J Korean Acad Nurs. 1996;26(2):497-506.
24. Guba EG, Lincoln YS.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9. 298 p.
25. Landeen J, Byrne C, Brown B. Exploring the lived experiences of psychiatric nursing students through self-reflective journals. J Adv Nurs. 1995;21(5):878-85.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5.21050878.x
26. Bai JI. A Study on the stress and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the psychiatric unit.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999;8(2):411-23.
27. Rhu SA. Is it possible that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re reintegrated into our communities?: the effect of social distance. Kor J Psychol: Gen. 2010;29(1):49-69.
28. Seo MG. A survey 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bout mental illnes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8. Available from: http://library.humanrights.go.kr/hermes/imgview/08_83.pdf
29. Walsh E, Buchanan A, Fahy T. Violence and schizophrenia: examining the evidence. Br J Psychiatry. 2002;180:490-95. http://dx.doi.org/10.1192/bjp.180.6.490
30. Hyun MS, Seo MA. Clinical practicum experiences of the nursing students' in psychiatric setting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0;9(1):44-53.